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제 2 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 지도자 대회

주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8월 2~9일, 일본 나고야현 하마나코 바이블 캠프장에서

선교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청년 대학부가 주최되어 실시되는 제2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 대회가 8월 2일(목)부터 9일(월)까지 일본 나고야현 토요하시에 있는 하마나코 바이블 캠프장에서 실시된다. 지난 91년 본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 대회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 지도자들이 신앙의 교류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확인하고 한국과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은 물론 그리스도를 향한 재현신과 복음 전파를 훈련하는 성령이 충만한 대회다. 이 대회는 격년제로 실시되며 한 번은 한국에서 한 번은 일본에서 실시되는데 지난번에 한국에서 실시되었기에 이번에는 일본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일본에서 실시되는 이 대회는 에베소서 3장 17-19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를 주제로 성구로 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실시되는데 참가자는 한국의 청년 50명, 일본의 청년 60명 등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로는 한국측의 신성종 목사, 김양흡 목사, 김학진 목사(동원

교회 당회장), 일본측의 오가무라마타오, 요시무라이키라, 세이노가즈히코, 이시카와고지, 시모가와도모야 목사 등 총 7명의 목사가 강사로 수고하게 된다. 신성종 목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첫날 저녁은 죄 사함을

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진지함도 보였다. 지난 3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선교위원장, 위원회 지도, 간사가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실무적인 회의를 가졌으며 6월 25일에는 일본 동맹 교단의 교육국장이자 동경 기독교 신학교 학장인 도모야 시모가와 목사가 와서 이 모임에 대한 준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 대회는 사무적인 것으로만 준비되어져서는 않는다. 일본으로 가게될 50명의 참석자들이 매 주 토요일이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할 전도 훈련, 언어 훈련, 에절 훈련 등 모든 준비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선교의 이론적인 것들과 영성 훈련은 선교위원회 지도인 김양흡 목사가, 언어와 에절은 선교위원장인 하대선 장로가, 그외의 일본에 대한 것은 김학진 목사가 강의를 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5일에 내한한 시모가와 목사는 훈련에 임하는 50명 청년들에게 일본의 다양한 복음 전파의 현실과 청년들의 실정을 알리면서 기도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진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훈련에 임하는 청년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판토마임을 전도용으로 준비하는 훈련을 쌓고 있다.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는 일하기에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기도원에 가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순서도 계획 중에 있다.



▲ 지난해 여름 제2회대회 협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며 노방전도하는 모습

받을 때, 둘째 날은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랑, 셋째 날은 복음을 가지고 흠뻑 젖어갈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김양흡 목사는 새벽 예배에서 그리스도인의 높이에 대해서, 김학진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번 대회는 일본 동맹기독교단인 주체가 되며 우리 교회가 후원자가 된다. 이 대회를 위해서 일본측은 교단적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양국간의 지도자가 서로 왕래하며 사전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목사

· 7월 19일 마석 수동기도원 개원 예배설교

· 7월 19일 여름성경학교 초등6부, 중등1부 학생 연합 부흥성회 (충현기도원)

2. 신성종 목사

· 7월 22일 하계 교직자 연수회 특강 (경주 조선포탈)

첫날 저녁(3일)의 개회예배를 비롯해서 7일(토)까지 실시되는 이 대회는 새벽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 읽기, 전도 실천(노방 전도), 친교, 저녁 집회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그 주된 내용들은 본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훈련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훈련으로 집중되어 있다. 한편 토요일 오후에는 일본의 청년들과 짝을 이루어 각각 동경, 나고야, 오오사카 등으로 흩어져 일본 청년들의 집으로 가서 민박을 하며 주일 준비를 하게 된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은 이곳에서 준비한 특송 몇 일본어로 약간의 간증을 하며, 예배 후에는 밖으로 나가서 한국에서 준비한 HANDS(판토마임)으로 전도를 하게 된다.

당회에서는 이번 국제대회가 은혜 중에 마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면으로 격려하고 있으며 이 대회가 국제 대회로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교회가 미래 지도자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동참해 주는 일이다. 온 교회의 기도와 격려 속에서 이번 한일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 대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마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에 열리는 여름계절학교

· 이미 시작된 여름 계절학교 금주에는 다음의 부서가 실시합니다. 다함께 위하여 기도로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영아부	7월 19, 20일	영아부실	특별한 사람
유치부	7월 19~21일	교205, 201	예수님과 함께
초등1부	7월 19~21일	교 212	꿈에 있는 어린이가 되자
초등2부	7월 19~21일	교301, 314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생활
초등3부	7월 19~21일	교 307	소망의 나라
초등4부	7월 19~21일	교 407	평화의 나라
초등5부	7월 19~21일	교 414	평화의 나라
초등6부	7월 19, 20일	충현기도원	하나님의 나라와 세대의 생활
중등1부	7월 19~21일	충현기도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중등2부	7월 21~24일	충현기도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고등부	7월 19~21일	두레마을	섬기는 미래 지도자
예배부(학생)	7월 22~24일	충현기도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일본과 케냐에 평신도 선교사

교회는 지난 주일 저녁 천양예배에서 일본으로 가서 사역하게 될 김철영 집사와 케냐 내로베에서 사역하게 될 고은빈 선생(고은빈 선생은 이미 출국하여 아버지 고병욱 장로가 대신 참석)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평신도 선교사 파송장을 수여했다.

로

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의 종교개혁에는 세 가지 중요한 표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반인 제사장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바로 17절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에서 그는 발견했고, 그리고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은 세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이 창조신앙은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창조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부활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

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건져주고 나약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는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고,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적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겉레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롬 1:8-17)

1.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직 의인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사회적인 의인이 아니라 이것은법정적인 개념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흔히 어려운 말로는 관계개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분석해보면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을 수가 있는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결혼예배나 생일예배 등에서도 사람이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즉 눈에 보이는 의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 인간들이 자기의 유익을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입니다. 제4계명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하는 경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있는나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계명이 열 개이면서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부가 다하나님 중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2.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방법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입니다.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부활신앙은 소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신앙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신앙을 연결시켜주는 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신

충헌강단



신 성 종

<목사·당회장>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재림신앙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될 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림신앙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과 창조신앙, 재림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충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창조신앙,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바로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어지고 모두가 다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

첫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는데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끄러워하고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될까? 본문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의를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언제나 이 말씀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바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와 같이 구걸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도와주는 신앙, 남을 섬기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형식적인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가 깨어 나와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살 수있기를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먼저 소유하기가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찬양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드립니다.

짧은 인생



인생이란 엄청난병 20년, 이것저것 20년, 여차야차 20년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은 엄청난병하다 다 가고, 나이 스무살이 되어 이제는 철이 좀 나서 무엇인가 해야 겠다고 마음 먹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금방 20년이 또 지나 나이 40이 된다. 뒤를 바라보면 줄줄이 사망처럼 아이들만 남아놓았고, 남들은 원가 유명해지고 한 가지씩 다 이루었는데 나는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못한 것들을 야차야차 후회하는 동안 또 인생은 흘러 나이 60이 되어 은퇴한다. 이렇게 인생이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하며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마치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었다 놓았다 하듯이 짧은 것만 찾아 해매지만 나중에 보면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닐까?

글 / 신 성 종 목사

■ 미주선교찬양을 다녀와서 ■

미국에 핀 충현무지개

박 성 명

(집사·실로암 찬양대)

할렐루야!

두 주일간 미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감동.

그것은 6개월간 애써온 충현찬양대원들의 노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뜨거운 기도로 원동력을 불어넣은 충현 온 성도들의 승리요! 지난 40년간 주님만을 앞세우고 묵묵히 걸은 충현교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요 영광이었다!!!

‘여러분들이 미국 제일의 도시인 이곳 뉴욕에 이민 온 진정한 뜻은 경제적 이유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땅에 새롭게 전파시키기 위한 평신도 선교사의 자격으로 온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도시 뉴욕을 복음화 시키기 위한 ‘할렐루야! 93 대뉴욕전도대회’ 첫날인 7월1일 저녁7시 ‘퀸즈 칼리지 대강당’에서 울려 퍼진 본 대회 주강사 신성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향수와 ‘대통령을 꿈꿀 수 없는’ 미국이민 생활에서 생의 목표와 용기를 잃기 쉬운 우리 교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북돋우기에 충분했고, 본 대회가 1980년부터 14회를 맞는 동안 이례적으로 첫날부터 퀸즈 칼리지 대강당을 채운 수많은 교포성도들의 놀라운 감동 그리고 기쁨에 눈물어린 눈망울을 바라보며 부른 ‘충현미주선교찬양대’의 김영준 곡 ‘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리’, 헨델의 ‘할렐루야’ 등의 찬양은 충현교회를 통해 미국땅에 피운 하나님이 선사한 영광의 무지개였다.

남달리 고생하며 미국에서 공부해 어려운 교포생활을 누구보다도 잘아시는 신목사님의 설교말씀은 교포들의 마음들을 열어젖혔고, 심령속에 파고 드는 뜨거운 메시지는 수많은 월부금과 타국생활에 마음 편한 날 없는 교포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믿는자의 사명감을 굳게해 주었으며, 이어진 통성기도는 믿음과 전도자의 새로운 각오가 솟아올라 활화산이었다.

누가 충현교회를 통해 미국땅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처럼 크게 역사하실줄 알았겠는가? 200명이 넘는 대 찬양대가 머나먼 미국땅에 무사히 다녀오기만해도 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오직 끊임없는 기도로 성원해 주신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하루가 다 걸린 비행기 여행후 시차적응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진 세계최고의 공연장인 뉴욕카네기홀의 찬양은 그 높은 수준으로 한인 교포들에게 감탄과 한국인의 자긍심을 크게 높혀주며 ‘미주찬양 대합창제’의 격을 올려주었지만, 공연순서 한시간을 앞두고 대기실에서 피곤과 수면부족으로 몸도 가누지 못하며 최종연습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밖에는 터져나오는 말이 없었다. 열광적인 박수와 쏟아지는 격려와 축하속에 공연을 마치며 ‘역시 충현교회야!’ ‘코리아 넘버원’이라는 놀라움의 외침속에 번쩍 가슴을 강하

게 스쳐가는 영감이 느껴졌다. ‘100여년전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이 미국에 한국이 그 복음을 크게 성장시켜 역수출시키는 선봉에 하나님이 충현교회를 세우시는구나!’ 한국 기독교 역사상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놀라운 미주선교찬양이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주일날 아침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카고 무디교회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강대상보다도 훨씬 높은 찬양대석을 200명의 충현찬양대가 꽂쳐우며 우렁차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고 미국인들과 성찬을 나눴을 때, 쏟아지는 미국인들 비롯한 세계각국 사람들의 감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화는 성도로서는 잊지 못할 커다란 추억으로 남았고, 그날 저녁의 같은 장소에서 드린 찬양예배는 예상 밖에 많은 미국인들이 찾아와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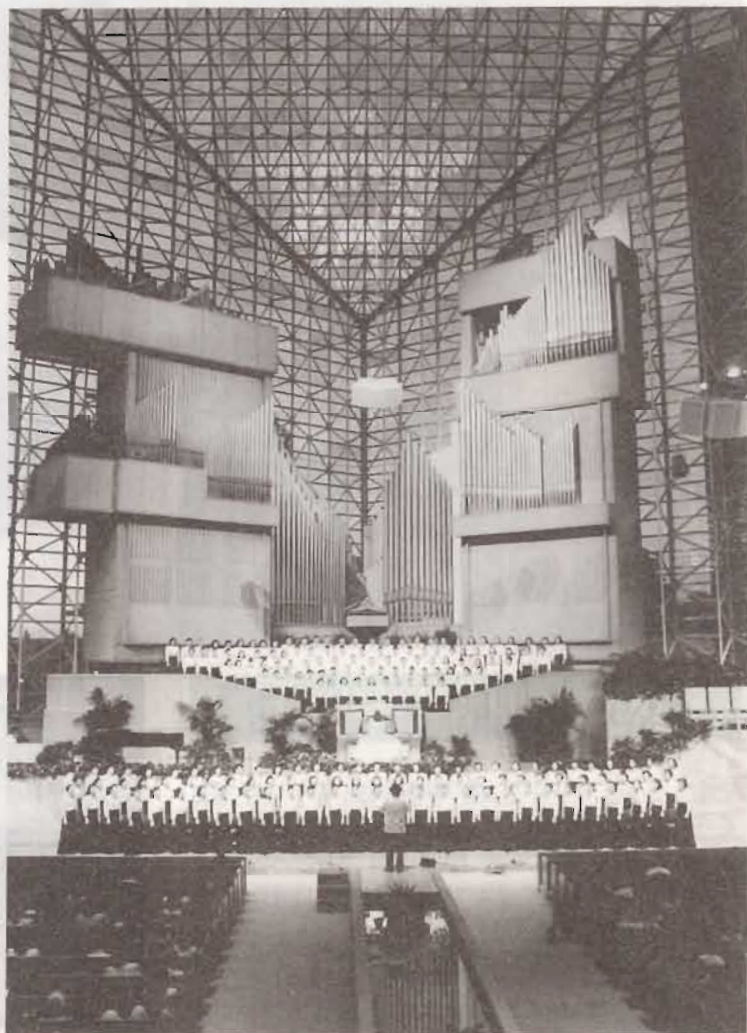
미주선교찬양의 마지막 공연장인 L.A수정교회. 온 벽과 지붕이 유리로 만들어졌고 세계 제일의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돼 있는 ‘크리스탈 처치’에서의 찬양을 아름답게 마치고, 무심코 들렀다가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을 들었다고 ‘뽕’을 연발하는 미국인들과 훗날을 기약하고 싶어하는 교인들을 뒤로하고 미국을 떠날 때는

올 때 낫설었던 마음은 어디론지 사라져있고 미국땅도 하나님의 땅이요 복음사역의 기지라는 생각이 가득차왔다.

“93충현 미주선교찬양”을 위해 뜨거운 기도로 성원해 주신 온 성도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크게 역사해주신 주님께 끝없는 영광을 돌린다.

사진설명 / (왼쪽부터) · 카네기홀에서의 93 미주성가대합창제에서, · 시카고의 무디교회에서

· 93 대 뉴욕전도대회에서 설교하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 (하 좌측) · L.A의 수정교회에서(하 우측)



토막소식

- ◆ 가브리엘 찬양대의 미혼자 수련회가 8월2~4일까지 열린다.
- ◆ 임마누엘 찬양대는 8월9~11일까지 송정에서 수련회를 가진다.
- ◆ 유치부는 다음주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모든 마무리를 마치고 기도예에 열심이다. 오늘 IV부 예배후 유치부실에서 교사기도회로 모인다.
- ◆ 초등2부는 여름성경학교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려오는 기회로 하고 열심히 전도중이다. 또한 매주 오후 예배를 오전 11시 30분~12시까지 교육관 301호에서, 수요일예배를 오후 4시에 교육관 109호에서 드린다.
- ◆ 초등3부는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훈

련을 겸해 모일때마다 울동, 찬양, 성경공부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매일 잠자기 전 10분간 기도하는 운동을 펴고 있다.

- ◆ 초등4부는 여름성경학교 기간 중 둘째날인 20일은 교회당에서 하루밤을 자면서 실시할 계획이다.
- ◆ 중등1부는 19~21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데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 유창무 목사, 김희수 목사, 김찬곤 목사이다.
- ◆ 중등3부는 매주일 오후 1시에 영어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다.
- ◆ 고등부는 금년도 여름수련회 일정을 바꾸어 7월 19~21일까지 하기로 했다. 장소는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에 있는 두레마을로 정했고, 주제는 '섬기는 미래 지도자', 강사는 장봉생 목사이다.
- ◆ 대학부는 하기전도대를 조직하여 전도활

등을 활발히 전개한다. NMC하기 전도대가 7월26~30일까지 부산에서 있을 예정이고, 꿈지기회 농촌봉사가 7월26~30일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있을 계획이다.

- ◆ 청년부의 통합 면려회총회가 오늘 주일(18일) 오후에 청년부실에서 있게 된다.
- ◆ 에바다부(학생)는 7월 22~24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의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들이 찬송 및 울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주일(오늘)은 저녁찬양예배후 교사실에서 기도회로 모인다.
- ◆ 새가족위원회는 확대된 기구에 따라 새로운 교사를 보충했다. 남교사 - 임기채 집사, 배춘식 집사, 이신동 집사, 여교사 - 조추자 집사, 최말순 집사, 정희공 집사, 손명희 선생이다.
- ◆ 새가정부는 오늘(18일) 오전 11시 교육관 201호 새가정부실에서 이두란 전도사가 '가

정에서의 자녀 신앙생활 교육'에 대하여 김희수 목사가 '자아 문화에 따른 부부간의 행복도'란 주제로 특강 시간을 갖는다.

- ◆ 조기교육원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봉사관 옥상에 종합 놀이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 ◆ 충현기도원은 기도원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기로 했다.
- ◆ 93년도 상반기 감사를 실시한다. 해당부서에서는 기간 중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필히 감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은 7월4일 ~ 25일(주일 II부 예배 후 ~ 찬양예배 전, 수요일은 I부 예배후 15:00분)에 선교관 404호에서 있다.

기독교교육 학술 심포지움 마쳐

7월 12일(월), 교회운동의 중요한 3가지 논제에 대해

지난 7월12일(월) 오전 10시, 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교회설립4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기독교교육 학술심포지움이 열렸다.

'교회교육의 현실진단과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동 심포지움은 1부 개회예배는 김용기 목사의 사회, 교육위원장 송기흥 장로의 기도,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본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제목으로 설교한 신목사는 "제자를 삼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육적 사명이다.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비판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홍창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심포지움은 논제1 '초기 한국교회와 교회교육이 사

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와 계승방안'에 대해 주선에 교수(장신대)의 발제강연과 이만열 교수(숙명여대)의 논평, 논제2 '교회교육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 오인탁 교수(연세대)의 발제강연과 정용섭 교수(한신대)의 논평, 논제3 '교회학교 교육지도자(교사) 양성론'에 대해 정일웅 교수(총신대)의 발제강연과 박상진 교수(장신대)의 논평으로 진행됐다.

국제회의실이 가득차게 참석한 사람들과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된 본 심포지움을 볼 때 오늘의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현주소를 보며 교회교육의 심각성과 바람직한 방안의 모색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었다.

▼ 교계의 큰 관심 속에 모였던 기독교교육 학술 심포지움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를 특정 주제로 묶어 내는 설교집이 나왔다(사진). 이 책은 그 첫번째로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고난'을 주제로 한 책이다. 이 책에는 성도의 고난, 절망, 상처 등이 주제로 된 설교 24편이 담겨있다. 도서출판 하나에서 발행했다.

국판, 212쪽, 가격은 4,500원, 교회테이프 보급소에서 살 수 있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주셔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 김창인 목사님 : 7월19일(월) 마석 수동기도원 개원 예배설교, 7월19일(월) 여름성경학교 초등6부, 중등1부 학생연합 부흥성회 설교(충현기도원)
· 신성종 목사님 : 7월22일(목) 하계교직자 연수회 특강(경주 조선호텔)
2.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각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각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4. 농어촌전도대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며 전도대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영육간의 강전함을 주셔서 에베에셀의 감사로 살아가며 사명 감당케 하옵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매일매시 기도예에 응답하옵시고 모교회와 주안의 형제자매님들이 사명다하라 기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하 선교일기에 의해 써보내겠습니다. 4월3일은 이곳 북해도에 선교제일보 상륙일로서 만16년이 되는 날입니다. 의료를 통하여 선교하고 혹은 부녀성경공부를 지도하며, 봉사와 성도의 교제 또는 한국 음식이나 특산물 나누기, 모교회의 선교지 탐방, 주보, 주간충현지 등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게 하였고 혹은 가두 전도, 각 초중고등학교의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4월4일 모교회의 남녀전도회에서 같이 봉사하던 당시 지동방 장로의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목사님으로 일본선교사로 파송되어 동경에 오셨는데 이곳을 심방하겠다고 두번전화가 있었는데 그후 소식이 끊어져 어디서 어떻게 선교사명을 감당하

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월7일 모교회로부터 주간충현 205호 ~ 208호, 충현의 만나 4월호, 예배주보 제3월분 도착. 기쁘고 감사하게 받았습니

다. 4월15일 모교회에서 불충한 자에게 93년 4월6일부터 보내주신 선교비를 잘 받았습니

다. 5월6일 모교회에서 보내주신 주간충현 4월분과 주보 4월분, 충현의 만나 5월호 도착.

5월11일 광미교회시절 전도의 씨앗으로 송전증자(62세)가 동경에서 아들과 살다가 다시 이사와서 주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했습니다.

5월21일 전도하여 3년간 교제하던 호스피스하던 할아버지가 뇌졸중이 되어 왕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5월30일 성령강림주일로 지키고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처럼 두 귀를 열어주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

6월10일 福島목사로부터 진단결과 암이 아니어서 주께 감사와 답신 오

다. 이 외에 병원대기실에 전도지와 쪽복음을 비치하여 전도하고 수시 진료전도도 합니다. 이 권사는 환자가죽과 교제하며 기회가 나면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병세, 이윤호 올림

